

# 베이징 신파디(新发地) 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對 중국 수출검역절차 강화 전망

북경 신파디 농산물 도매시장 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관련, 수입 수산물을 바이러스 유입원으로 추정, 현재 최초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당국이 중국 내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및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. 향후 수입 농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.  
**對 중국 수출기업들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됨**

## □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현황

- 북경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파디 시장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(6.11) 이후 누적 확진자 260명 육박(6.24 기준),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사실상 봉쇄조치 강화 중
- 북경 집단발병과 관련 유럽산 연어 수입 사실상 중단, 미국산 육류 (CV확진 직원 다수 발생 제조사 생산 제품) 수입 중단 보도

## □ 중국 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 대검사 실시 \* 주중대사관(20.6.15)

- 북경시 전역에서 신선식품, 육류, 수산물 중심 식품안전 대검사 추진 중이며, 천진시, 광둥성, 하남성, 감숙성에서도 비슷한 형태 검사 시행 중
  - (북경시) 대형마트 등 식품경영자 대상 감독활동 강화, 수입제품 출입국 검역증명서류 제출 요청
  - (하남성) 수입수산물의 검역증명서 미구비 시 판매금지
  - (감숙성) 농산물 산지증명서 미구비 시 입점 금지, 수입식품 이력추적 감독활동 대폭 강화 등

## □ 농식품 수출 통관 현황

### ○ 한국 식품 관련 통관불가 사례는 없으나, 유제품 등 일부 품목 통관지연 발생, 향후 주시 필요

- (북경) 9개 품목\* 통관불가 통보. 다만, 항공운송을 통해 북경해관으로 통관되는 한국식품이 적어(주로 해운으로 북경 이외 해관통해 수입)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\* 9개 품목 : 냉동신선(수산물 등), 냉장신선(수산물, 육류, 채소 등), 냉동냉장식품(치즈, 우유 등), 과일, 동물원료식품(육포, 햄 등), 식품원료식품(콩가공식품, 스낵, 빵 등), 사료, 음료(주류 포함), 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

- (청도) 수입물량 아웃박스 샘플채취 바이러스 검사 강화
- (위해) 수입 신선유 브랜드 대상 전수 검사 통보